

하석주 해설위원이 본 손흥민의 위력



손흥민이 5월 28일 대구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온두라스와의 평가전에서 오른발 슈팅을 날리고 있다. 오른발잡이인 손흥민은 왼발슈팅도 오른발처럼 자유자재로 구사한다. 온두라스전에선 왼발로 골을 뽑았다. 대구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SON은 양발의 달인…수비수들 멘붕”

온두라스전 벼락골도 왼발 감아차기 강한 슈팅뿐 아니라 자유자재 컨트롤 오른발·왼발잡이 따라 수비방향 달라 “손흥민은 완벽한 양발…완성된 FW”

한국축구대표팀의 간판 공격수 손흥민(26·토트넘)은 2018러시아월드컵에서 가장 주목 받는 선수 중 하나다.

그는 전 세계 축구팬들이 주목할 만큼 뛰어난 기량의 소유자다. 폭발적인 돌파력과 왕성한 활동력, 출중한 개인기술, 골 결정력 등 공격수로 갖춰야 할 요소를 두루 갖고 있다.

이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능력 중 하나는 바로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손흥민은 오른발잡이지만 왼발 슈팅도 오른발 못지않

게 위력적이다. 5월 28일 대구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온두라스와의 평가전 선제골은 ‘양발 쓰는’ 손흥민의 매력을 보여준 장면이기도 하다. 그는 0-0으로 맞선 후반 15분 벼락같은 왼발 중거리슛을 온두라스 골문에 차 넣었다. 손흥민은 소속팀 경기에서도 왼발로 수차례에 걸쳐 골을 터뜨린 바 있다. 강한 슈팅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감아차기도 자유자재로 구사한다.

현역시절 ‘왼발의 달인’으로 불린 하석주(50·아주대학교 감독) 스포츠동아 월드컵 해설위원은 31일, “손흥민은 왼발로도 오른발 못지않은 슈팅을 구사한다. 나는 현역시절 왼발을 잘 썼지만, 오른발은 쥔법이었다. 대부분의 선수가 그렇다. 양발로 슈팅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통틀어도 양발을 이 정도로 자유자재로 쓰는 선수는 드물다”고 말했다.

양발을 쓰는 공격수가 있다는 것은 대표팀에 게는 큰 무기이고, 상대는 매우 까다롭고 위협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하 해설위원은 “상대 주요 선수 분석을 할 때 오른발잡이나, 왼발잡이나에 따라 수비하는 방향 자체가 다르다. 왼발이 강한 선수면 왼쪽을 차단하고 오른발을 쓰도록 몰아갈 수 있는데, 손흥민처럼 양발을 다 쓰면 상대로서는 어느 쪽 수비에 집중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손흥민은 이미 스웨덴, 멕시코, 독일 등 F조 상대국들에게 경계대상으로 손꼽히고 있다. 조별예선 첫 상대인 스웨덴의 전력분석을 맡고 있는 라스 야콥슨은 30일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한국의 핵심선수로 완성된 공격수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가상 스웨덴’ 보스니아전, 스리백으로 출발한다”

보스니아전 앞둔 신태용 감독

한국 축구국가대표팀(FIFA랭킹 61위)은 1일 오후 8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2018러시아월드컵 출정식을 겸한 평가전을 갖는다. 상대는 FIFA 랭킹 41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월드컵 조별리그 F조에서 만날 스웨덴과 독일을 겨냥한 스파링 파트너인 보스니아는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했지만 공격수 에딘 제코(32·AS로마), 미드필더 미랄렘 피니치(28·유벤투스) 등 월드컵클래스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 수비는 스웨덴과 독일처럼 장신 라인업을 갖췄다. 대표팀 신태용(48) 감독은 5월 31일 가

진 공식 기자회견에서 “가상 스웨덴으로 생각하고 있다. 국내에서 치르는 마지막 평가전인 만큼 좋은 경기로 팬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 감독의 일문일답.

-국내에서 치르는 마지막 평가전이다.

“월드컵 출정식도 겸한 경기를 한다.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개인적으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좋은 추억이 있다. U-20 월드컵 개막전, 조별리그 2차전 아르헨티나와의 경기를 여기서 치렀다. 결과도, 성적도 좋았다. 그 기운을 받아서 멋진 모습 보여주겠다.”

-온두라스에 비해 상대가 더 강하다. 수비 점검이 가능할 것 같다.

“제코, 피니치 등 좋은 선수들이 많다. 온두라스전보다 훨씬 힘든 경기가 될 수 있다. 선수들에게 페널티에어리어 외곽과 인접에서 어떻게 수비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월드컵 본선에 대비해 좋은 공부가 될 것 같다.”

-장신 수비수들에 대한 공략법은.

“온두라스전을 마치고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진 않았다. 그렇지만 가상 스웨덴으로 생각하고 선수들에게 주문을 하고 있다. 신체적인 조건이 좋은 선수를 상대로 압박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온두라스전과 비교해서 전술변화를 줄 생각이 있다.

“스타팅부터 스리백으로 간다.”

전주 |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따르릉…” 휴대전화가 울리면 최종탈락

2일 최종명단 발표…어떻게 알리나?

신태용 감독, 개별 연락 통해 위로

축구국가대표팀은 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2018러시아월드컵 출정식을 겸해 열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평가전을 끝으로 12일간 진행한 국내훈련을 마무리한다.

물론 시기가 시기인 터라 여유는 없다. 대표팀

은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재소집돼 사전전지 훈련이 예정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인근 레오강으로 향한다. 직항노선이 마려된 비엔나부터 육로로 약 4시간 정도 더 이동하는 긴 여정이다.

국내훈련에 참여한 26명 전원이 동행하진 않는다. 월드컵 최종엔트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3명을 추려야 한다. 신태용(48) 감독이 2일 확인될 탈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위로할 계획인데, 최종엔트리에 승선한 태극전사들

에게는 보안유지를 위해 공식 보도자료가 먼저 배포된 뒤 소집 장소 및 시간이 적힌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대표팀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가짜야 한다. 정확한 통보 방식도 정해지지 않았고, 해산을 1일 A매치 직후에 할지 여부도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3일 레오강에 여장을 풀 대표팀은 두 차례(한국시간 7일 불리비아·11일 세네갈) 친선경기를 치르고 11일까지 머물다 12일 독일 뮌헨을 거쳐 월드컵 베이스캠프가 차려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떠난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for a better living

여름철 시원한 초강력 냉방!!
겨울철 따뜻한 난방!!
이동하면서 필요한곳에서 사용하세요

실외기 설치가 필요없는

21세천리 스마트 이동식 냉 난방기, 에어컨 출시!!

냉방, 난방, 공기정화, 제습, 송풍을 하나로!

← **21세천리 이동식 에어컨**

특별할인가 : **698,000원**

CYP-1016AC

- 소비전력 : 1020W
- 냉방능력 : 10,000BTU/h(33m²)
- 제품크기 : 430(W) x 390(D) x 810(H)
- 제품무게 : 34kg
- 제습량 : 1.0L/h

냉방 / 송풍 / 제습
리모컨 / 타이머

← **21세천리 이동식 에어컨**

특별할인가 : **798,000원**

CYP-102AC

- 냉방능력 : 10,000BTU/h(33m²)
- 소비전력 : 1,050W
- 제습량 : 1.0 L/h
- 제품크기 : 46cm x 50cm x 41cm (W x H x D)

냉방 / 자동송풍 / 제습
공기정화 / 리모컨 / 타이머

← **스마트 이동식 냉난방기**

특별할인가 : **898,000원**

CY-169H

- 사용전압 : 220V/60Hz
- 제품크기 : 47cm x 33cm x 84cm (W x H x D)
- 제품중량 : 34kg

냉방 / 난방 / 자동송풍
제습 / 리모컨 / 타이머
공기정화

※ 냉풍기가 아닌 에어컨입니다.

전국주문전화 1644-7636

21세천리 특판사업부

24시간 접수(토·일·요일 정상주문 가능) (택배비 고객부담)

입금계좌 농협 485049-56-000764 정금순